

## 2018 청년관광 아이디어 제안서

		공모분야	관광정책
제안명	리틀 포레스트 in 충남 :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모티브로 한 청년 하우스웨어 프로그램		

□ 제안배경

본 아이디어에 영감을 준 영화 <리틀포레스트>는 현실에서 염증을 느낀 주인공이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단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영화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현대인에게는 어색한, 잘 멈추고 잘 쉬어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잘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통해 ‘자신만의 숲’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현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피로감과 공허함을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얻었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 대비 49.7% 가량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2만명 이상 증가한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문가들은 청년 우울증의 원인으로 취업과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도시로부터 도망친 주인공 ‘혜원’은 결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실존 인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잔잔한 공감을 이루어 낸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 일뿐, <리틀 포레스트>의 삶을 동경하지만 현실 속 청년들 모두에겐 돌아갈 시골집이 없다. 20대 라이프 매거진 ‘대학내일’의 조사에 따르면 20대들은 “도시의 뻘뻘한 삶을 청산하고 조용한 곳에서 정착하려는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에 가장 공감하며(82.1%), <효리네 민박> 시즌 1,2가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체 인터뷰 결과, ‘리틀 포레스트처럼 도시를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나에게는 돌아갈 시골집이 없다.’라는 응답에서 청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입증되었다.

청년들은 자연에 순리를 따라 움직이는 교외의 삶을 동경하고 그곳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농산어촌은 농가 유희시설 운영방안 마련,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청년층에게 폐쇄적이고 낡은 이미지가 공고히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볼거리, 즐길 거리, 그리고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멋진 ‘자신만의 숲’ 역할을 충분히 해내며 상처받은 청년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임을 확신한다.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이었던 혜원이 가장 힘든 시기에 오랜 시골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이, ‘충청남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시골집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다.

#### □ 제안내용

##### 아이디어 컨셉 및 개요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리틀 포레스트 in 충남’이다. 모두에게는 쉬었다 갈 수 있는 자신만의 숲이 있어야 한다는 영화의 내용처럼, 충청남도가 청년들에게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농어산촌의 빈 방, 빈 집, 기타 유희 공간 등을 개조한 뒤 청년들의 셰어하우스로 활용하여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의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자유롭게 여행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기회를 마련한다. 동시에 청년들은 취향에 맞는 지역의 원데이 클래스들을 선택하여 체험, 이를 통해 건강한 취미를 만들고 자아를 실현해가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도시를 떠나온 청년들에게 자연의 순리 안에서 느릿느릿 여유를 만끽하고 한 숨 쉬었다 갈 수 있는 기회 및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한다.

##### 운영 방식

우선 셰어 공간 확보를 위해 농어산촌민이 ‘충청남도’ 관련 공공기관에 자신의 집 또는 방, 동네의 유희시설을 ‘포레스트 하우스’로 사전 등록한다. 여기서 ‘포레스트(forest)’라는 이름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모티브로 한 만큼 청년들에게 ‘자신만의 숲’이 되는 공간을 의미함과

동시에 'for rest' 즉 쉼을 위한 공간이라는 직관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포레스트 하우스'는 냉난방, 방역, 병원 등 기초 인프라가 있는 읍내와의 거리, 공간의 크기, 신청자의 신원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최종 선발한다.

본 체험은 상, 하반기 각각 1회씩 거주 형태에 따라 선발한다. (상반기: 3~7월 거주, 하반기: 9~1월 거주. 단, 극성수기인 8월과 휴농기이자 휴농기인 2월은 신청에서 제외한다. 대신 다음 기수를 위한 공간 정비 및 인원 선발 기간으로 활용한다.) 각 달마다 20명씩 모집을 진행하며 1934 나이라면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개인/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 선발 과정: 자신의 성별, 사연, 특기/취미(청소 등 사소한 것이라도 좋음), 성격, 생활패턴, 희망 거주 달, 희망 거주 방식 등을 담은 지원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1차 서류 심사 후에는 신청 인원의 지역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차 전화 면접을 진행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포레스터'라고 불리며 자신이 신청한 달에 배정된 농어산촌의 '포레스트 하우스'에 거주하며 생활한다.

\* 거주 형태: 임대료 지불 방식에 따라 아래 두 가지로 분리된다. 주거 형태에 따라 청년이 제공 농가에 지급하는 월세는 상이하며, 휴가형일 경우 20만원 내외로 월세를 책정한다.

- 1) 자유형: 농어산촌민이 산정한 월세 지급하고 자율 휴가를 보내는 형태.
- 2) 실속형: 농어산촌의 일손을 돕는 조건으로 저렴한 월세를 지급하거나 혹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형태. (일 근무 시간, 월세에 대한 할인율 등은 농가 별 '포레스트 하우스' 등록 시 기재하여 승인한 청년과 매칭)

\* 원데이 클래스 체험: 거주를 시작하는 청년들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충남을 여행하며 원데이 클래스 체험들에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 옵션처럼 농가/지역 별 원데이 클래스가 함께 구성된다. (ex.장 담그기, 다도, 누에치기, 한지 공예, 템플스테이, 향토음식 체험 등) 농어촌 마을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체험을 운영하고 클래스 운영이 어려운 경우 능력자 초청하여 재능기부 형식으로 청년들의 체험을 더욱 원활히 돕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한 달 간의 거주가 끝나면 해당 기수 포레스터들은 충남도청에 모여, 수료식 및 후기 공유회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

행사는 충청남도에서 쉼을 체험하는 동안 서로가 남긴 사진, 영상, 글, 그림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취지의 것으로, 공유된 자료들은 이후 취합하여 매 기수 문집, 잡지, 사진집 등의 형태로 발간하여 온/오프라인 배포를 진행한다. 이러한 수료식 형태의 사후 관리는 리틀 포레스트 프로그램에서의 개인의 경험을 보다 확장하고 만족감을 높일 뿐 아니라, 바이럴을 생산해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 관련 통계 및 현황

- 1) 관광 트렌드 ‘스테이피케이션’: 현대의 관광 트렌드는 Stay(쉬다)+Vacation(휴가)의 합성어인 ‘스테이피케이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도한 학업, 업무 등에 지친 현대인들이 무리한 일정 없이 편안한 곳에서 느긋하게 숙박하며 근처에서 휴가를 즐기는 관광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 2) 제주도 한 달 살기 붐. 관광객 및 수익 증가: 현대 관광 형태는 점차 체험형, 개별 관광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살펴보면 더욱 잘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를 방문한 한 달 살기 족들은 제주 도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명소 등에서 체험을 하고 소비를 한다. 실제로 서귀포시의 한 커피 농장에서는 ‘제주 커피’ 원두로 직접 커피를 내려보고, 커피로 만든 2차 가공품인 와인을 생산하고 시음하는 체험을 진행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했다고 한다. 이러한 붐의 결과로 제주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한 달 살기’용 주택들은 이듬 해 하반기까지 예약이 찻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제주 시골 마을의 식당, 펜션과 렌터카 업체 등의 매출 역시 10% 증가했다고 한다.
- 3) 농어산촌 일손 부족 문제: 농어산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태안은 이번 해 몽골인 70명을 계절 근로자로 배치한 바 있으며, 기타 소방관, 군인 등의 인력 역시 매 농번기 일손을 보태고 있다.
- 4) 농어산촌 빈집 증가: 2017년 기준 충남 지역에 위치한 집 10채 중 1채가 빈집으로 밝혀졌다. 도 내 가구 중 9.8%가 빈집이며 이는 전국보다 높은 비율이다. 전국으로 넓혀 보면 약 가구 5만 채가 빈집으로 집계될 만큼 ‘빈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여 반값 임대주택, 공공시설 등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다수 보인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가구 당 1천 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 후 거주 취약 계층(ex 노인, 장애인, 청년 등)에게 반값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극히 작은 비율만이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빈집 현상이 더욱 심각한 일본은 이러한 빈집 현황을 취합하여 빈집 뱅크를 운영 중에 있다.

5) 충남 고령화 심각: 충남은 2017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17.1%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젊음을 잃어가고 있다. 그 중 청양, 부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농촌의 젊은 층 유입에 필수적이다.

####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도시의 인프라가 익숙한 청년들이 충남 농어촌에 적응할 수 있는가?

→ 농어산촌의 거주민이 청년들의 '생활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하며 적응을 도울 수 있다.

② 농민들이 청년들의 농활을 크게 반기지 않음. 실제로 대학생 필수 활동으로 손꼽던 농활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학생들이 농가에 와서 일회성 관계 맺기, 음주사고, 밤늦은 시간 고성방가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학생들 역시 고된 일정, 농어산촌의 성 역할 인식 결여 등의 이유로 농활을 꺼리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

→ 이는 선발 과정의 문제로서 과정의 정교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서를 1차적으로는 도청, 2차적으로는 각 분야의 농어산촌민들이 이중으로 심사를 함으로써 적합한 청년 대상자를 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귀농 장려 정책과 같이 관련 교육 시간 의무 이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문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민들 역시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재 사회화/탈 위계/ 성 역할 인식 재고 / 정보격차 등의 교양)을 의무 이수하도록 한다.

③ 긴급 상황 발생 시 파악 어려움.

→ 쉼터 하우스, 장기 거주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 보안, 돌발상황 발생, 혼숙 등의 위험성이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포레스트 하우스’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거주에 적합한 형태를 구축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주변 농가, 지자체 및 경찰, 인근 병원, 정부 공무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보 방안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선발 공고 및 생활비 전액 지원 이벤트를 내용으로 하여, TV, 라디오 등 전통 매체가 아닌 청년들이 주로 정보를 접하는 온라인 매체와 캠퍼스 대자보 형식의 옥외 인쇄 광고 위주로 집행한다. 그 중 온라인 홍보는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의 여행 채널에 노출, 취업 및 대외활동 관련 카페에 게시한다. 특히 여행 유튜버(ex 청춘여락, 여행에 미치다, 청춘유리 등)를 섭외하여 한 달 살기 체험을 사전 진행한 다음, 체험 후기 바이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버의 개인 SNS계정 및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배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실제 1934세대에게는 ‘리뷰 영상’이 매우 효과적이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2017년 실시한 ‘1934세대 온라인 영상 콘텐츠 및 광고 시청 행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셜 상의 스낵 영상을 보고 따라하거나 영상 속 장소에 가본 적 있다고 응답한 1934세대는 전체 42.0%를 차지한다.

예상되는 비용

- 각 농어산촌 마을에 지원금 지급: 해당 마을에 방문하는 포레스터 관리, 주거 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을 농가 당 최대 100만원 선으로 지원한다. (단, 예산안 제출 필수)

\* 최대 40여 개(한 달에 4개 가구\*10개월)의 마을 선정 시 4천 만 원

\*\*마을이 중복될 경우 예상 지출 적어질 것으로 예상

- 참여 청년들에게 생활비 보조금 지급 : 교통비, 지역 원데이 클래스

체험 지원비, 생활비 보조금 명목으로 인당 월 10만원 지원한다.

\*최대 200명의 청년(한달에 20명\*10개월)에게 10만원씩 2천 만 원  
- 농어산촌민 및 청년 필수 교육 이수비: 강사 초청비 또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 강의로 배포할 시 해당 플랫폼 서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일반 운영비:

적합 농가 사전 심사 시 심사위원 직접 방문 등에 드는 교통비 및 인건비, 청년 거주자 선발 시 서류 심사 등에 드는 인건비, 수료식 및 후기 공유회 운영비, 홍보 및 마케팅비(여행 유튜버 섭외 비용 포함), 체험 후 사진집 발간 시 인쇄비 및 배포비(온라인 발간, 배포 시 면제), 농가 및 청년 연락망 구축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 □ 기대효과

아래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상으로 나누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추가적인 잠재가능성을 설명한다.

##### ① 청년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힐링 공간을 충청남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우울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부가 경제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해당 주거 체험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농가

농가에서는 주거 체험을 신청한 청년층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청년 주거 체험이 관광 비수기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경제적 혜택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충청남도의 문제로 대두되는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충청남도

청년층의 유입으로 젊은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다. 청년 관광객의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전자 매체를 통한 다양한 후기는 충청남도의 젊은 이미지 구축에 도움 될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래 농업이 지속발전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요즘 가족 단위로 ‘한달 살기’ 여행 등 도시를 떠나 힐링을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트렌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제주도 작년 대비 관광객 18% 증가)

따라서 이러한 ‘-달 살기’ 형식이 청년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외국인 등으로 영역이 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하나의 관광지로서 그칠 것이 하나의 ‘청년창업’ 충청남도가 하나의 특화 단지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현 청년층을 작업 환경이 자유롭다는 의미의 ‘디지털 노마드’ 세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청년 귀농인이나 창업가를 상대로 저렴한 임대료, 서울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 등으로 유치하고 현재 비어있는 건물을 그들의 작업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충청남도의 ‘젊은’ 이미지를 함께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 상기 형식에 따라 A4지 용지기준 2 ~ 5매 작성 원칙이나 반드시 형식에 맞출 필요 없음